

역사 교과서 '국정화', 무엇이 문제인가?

2013년 8월 30일,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 오류와 역사왜곡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, 교육부는 재검정에 해당하는 수정 절차를 거쳐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을 유지시켰다. 논란이 된 교학사 교과서는 20여개 학교에서만 채택하였지만, 학생, 교사, 학부모, 졸업생, 시민사회단체의 항의를 받고 모두 채택을 철회하였다. 이 과정에서 교과서 채택과 채택 철회 과정에 대한 '외압'이라는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었다.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올해 1월 9일, 교과서 문제의 해법으로서 편수기능을 강화하고 역사교과서 발행체계 개선안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. 이것은 '사실상의 국정화'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논란은 교과서 제도 개편으로 확산되었다.

이 토론회는 이번 '역사교과서 사태'의 본질과 역사 교과서 '국정화'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, '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' 확보를 위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교과서개발기구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보고 공론화하고자 한다.

» 사회 : 김연순 (홍사단교육운동본부 정책위원장)

» 발제

- 역사교과서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? : 박한용 (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)
- 교과서제도의 변천과 방향 : 양정현 (부산대 교수, 한국역사교육학회장)

» 토론

- 성기선 (가톨릭대 교수,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소장)
- 신성호 (전교조 참교육실 정책위원)
- 이성호 (배명중학교 교사, 전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)

» 일시 : 2014년 2월 11일(화) 늦은 2시

» 장소 : 홍사단 3층 강당

» 주관 : 홍사단교육운동본부

» 주최 : 교육운동연대,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, 참교육학부모회, 친일독재미화뉴라이트교과서
검정무효화국민네트워크,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, 한국YMCA전국연맹, 홍사단